

김만수의 어려운 것을 정해주는 남자

여러분들의 고민을 해결을 드리는 어정남 코너에 첫 번째 사연이 도착했습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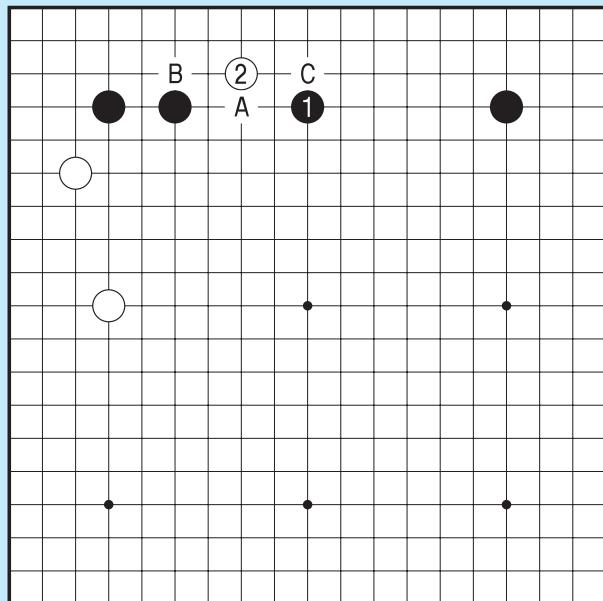
순천에 살고 있는 애기가(愛棋家)께서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.

“김 사범님 수고하십니다. 저는 3급을 목표로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5급의 기력을 가진 60대 남성입니다. 제가 바둑도 많이 두고 나름대로는 열심히 노력한다고 생각합니다. 아 근데, 바둑이 잘 안 늘어요. 도대체 바둑실력이 늘려면 책을 봐야 합니까, 아니면 바둑을 많이 두어야 합니까?”

자~ 이거 어렵습니다. 바둑 둔 지 10년이 넘었는데 아직도 인터넷에서 급 달고 계신 분들, 바둑이 늘려면 책을 봐야 할까요, 바둑을 둬야 할까요? 어정남이 확실히 정리해드립니다. 실력을 늘리려면…

책도 보고 바둑도 둬야 됩니다. 하나만 하면 안 되는 거예요. 귀찮다고 책 안 보시면 10년 동안 기원 나가서 바둑 둬도 인터넷 급수 안 오릅니다. 이제 책보면서 공부 안 하고 실력이 안 된다고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. 아셨죠?

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어정남 강좌로 출발~!!



장면도1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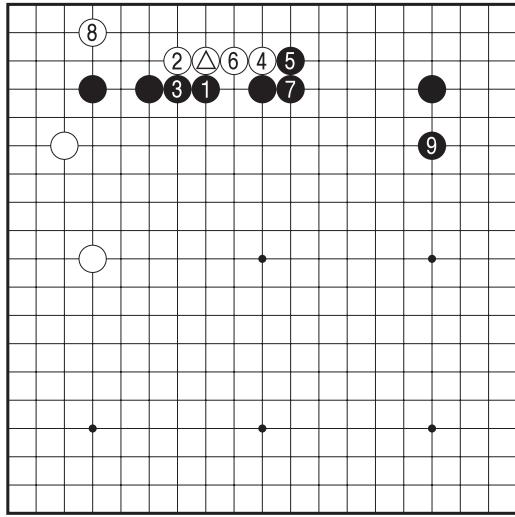
흑1로 벌릴 때 백2로 침입해오면 참 짜증납니다. 꽈擦拭해서 잡으려 가면 내가 도로 잡히고, 밖으로 내몰면 나중에 귀가 공격당하고… 정말 저 돌 하나 때문에 미쳐버립니다. 도대체 어떻게 받아야 할까요?

1도 정답- 그냥 다 막아!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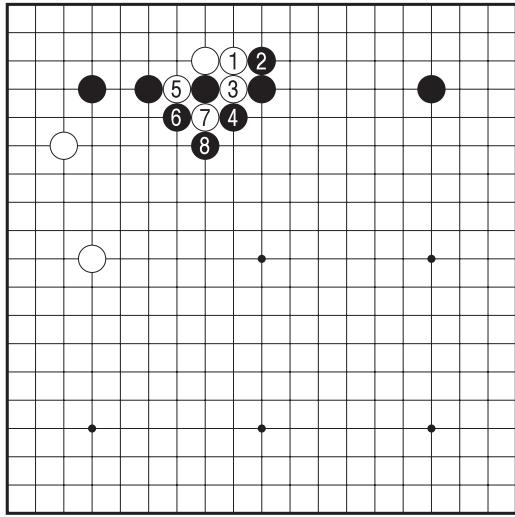
자~ 그럼 정답 가르쳐 드립니다. 백이 ①로 침입해오면, 일단 1로 무조건 막는 겁니다. 백2로 나오면 또 막습니다. 4로 붙여도 또 막습니다. 간단하



바둑을 두다보면 매번 머리가 지끈거리는 어려운
장면이나 애매한 갈림길을 만나게 됩니다.
한 번 당하고 두 번 당하고 세 번 당해도
알쏭달쏭한 어려운 장면들.
어정남 김만수가 확실히 정해드립니다.



1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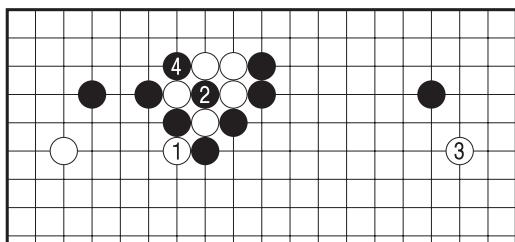


2도

죠? 그런데 백이 8로 달리면 귀가 다 파여서 손해 본 것 같다고요? 아까워하면 지는 거예요~ 오른쪽을 보세요. 흑9로 한칸 뛰면 왼쪽에서 손해 본 것보다 훨씬 큰 집이 생겨났죠? 바둑은 이렇게 유연하게 둬야 느는 겁니다.

2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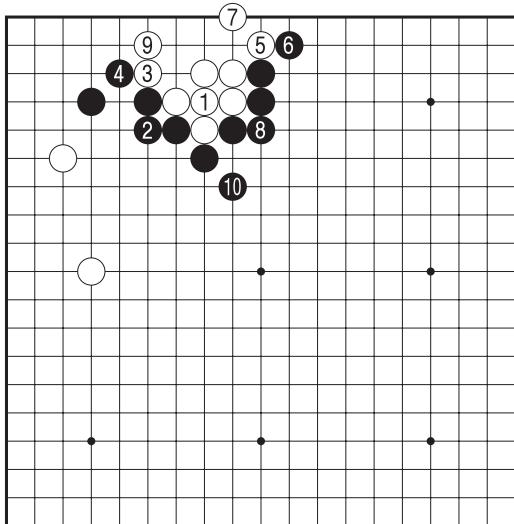
백1 반대쪽으로 두면 어떻게 되냐고요? 역시 막으면 되는데 이번에는 아까랑 막는 방향이 다릅니다. 흑2로 막으면 백이 아~주 답답해져요. 자~ 이제부터 빠져나오려고 하는 걸 또다시 다 막습니다. 3도 막고 5도 막고 7도 막습니다. 자기가 상수라고 이렇게 무리하게 두면 확실하게 응징해주는 거예요~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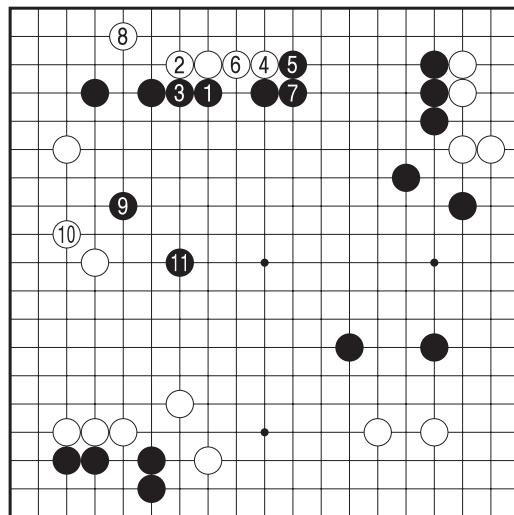
3도

3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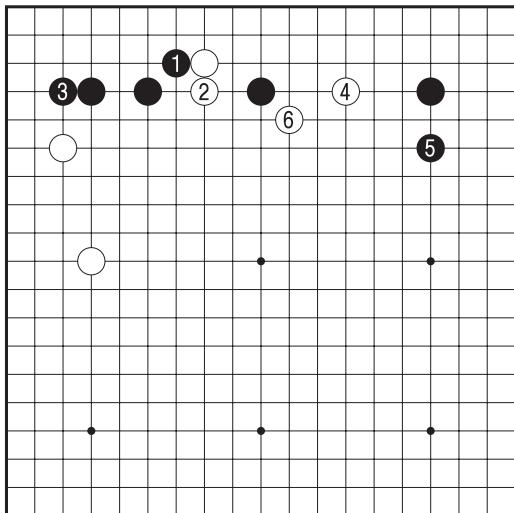
백1에 두면 패가 되니까 큰일 나지 않냐고요?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. 초반에는 큰 팻감이 없으니까요. 어딜 두든 만패불청하면 상황 끝! 아무리 고수라도 팻감 없으면 패 못 따는 거예요. 무서워할 필요 없어요. 아셨죠?



4도



4-1도



5도

4도

그럼 백이 1로 이어 2집 내고 살면 어떡하냐고 물어보고 싶은 독자도 분명 있을 거예요.

그럴 땐 간단합니다. 그냥 살려주면 되요. 먼저 2로 단점을 이은 다음 백이 하자는 대로 받아주세요.

백9로 살지 않았냐고요? 저렇게 살겠다고 발버둥치면 3평 단칸방 정도는 그냥 주면 되는 겁니다~ 3평 정도는 줘도 괜찮은 거예요. 10으로 지켜두면 나중에 저것보다 훨씬 큰 집을 살 수

있어요.

어라? 아닌 것 같다고요? 흑집이 모두 깨졌는데 왜 흑이 좋냐고요?

4-1도 실전례 다께미야9단 대 조치훈9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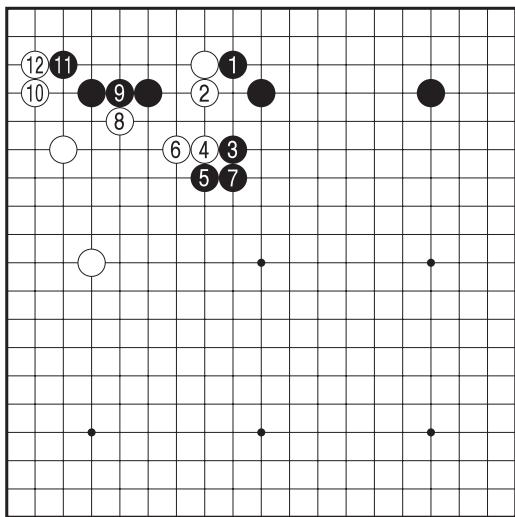
여러분 보세요, 다께미야 九단도 이렇게 두잖아요? 다께미야 九단이 이렇게 뒀으면 뒤도 되는 거예요~ 왜냐? 다께미야 九단은 잘 두니까요.

5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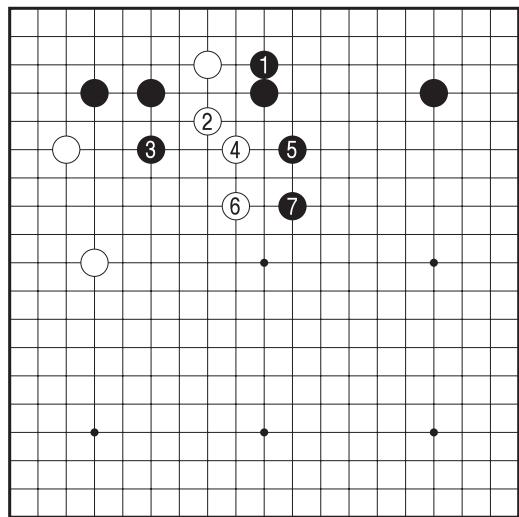
자, 이번엔 반대로 어떻게 두면 안 되는지 정해 드립니다~ 먼저, 흑1로 두면 큰일 납니다. 백을 단단하게 해주고 백6까지 오히려 흑이 공격을 당해서는 바둑 끝나는 거예요. 그냥 흑1 같은 수는 머리에서 지워버리세요.

6도

그럼 반대로 붙이는 건 괜찮냐고요? 당연히 안 됩니다~ 백12까지 오히려 흑돌이 위험해 질 수 있어요. 이런 모양에서 어느 쪽으로든 옆구리에 붙이면 바둑 이기고 싶은 생각이 없는 거랍니다. 아셨죠?



6도



7도

7도 초급자를 위한 차선

그런데 위의 변화들이 너무 어려워서 실전에 선 못 둘 것 같다고 생각하고 계신 독자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.

그런 초급자들을 위해 아주 쉬운 변화도 준비해 왔습니다. 7도처럼 두면 잘 두는 건 아니지만 망하지는 않습니다. 아주 쉽죠? 그런데 자신이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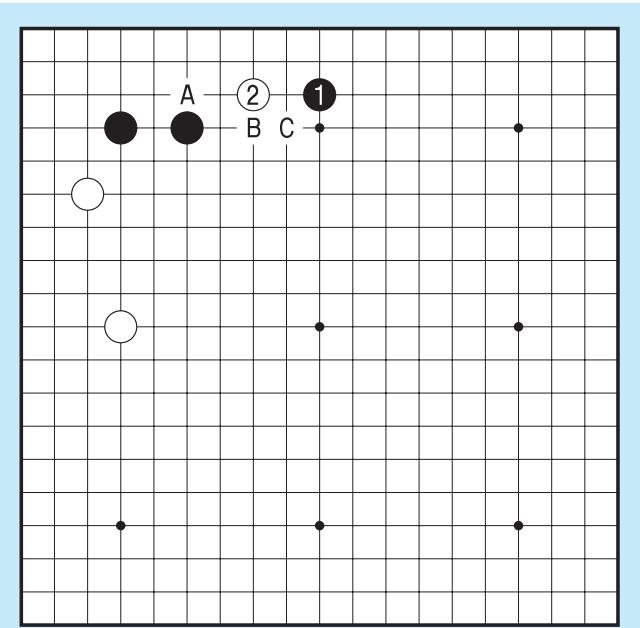
초급잔지 아닌지 모르겠다고요? 자, 그럼 초급자의 기준을 어정남이 정해 드립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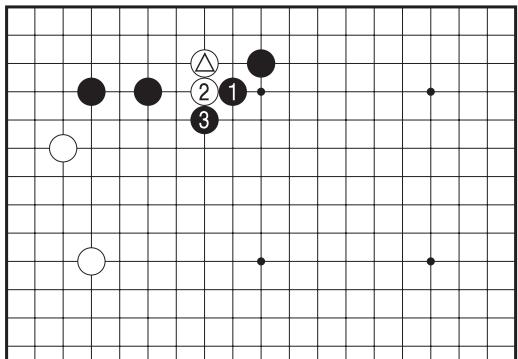
저 위의 변화가 어려우면 무조건 초급자입니다~ 저게 이해가 안 되면서 중급 정돈 된다고 우시기면 안 되는 거예요~ 그런 분들은 다 7도처럼 쉽게 받으면 됩니다. 괜히 객기 부리다 망해도 어정남 책임 안 집니다~

장면도2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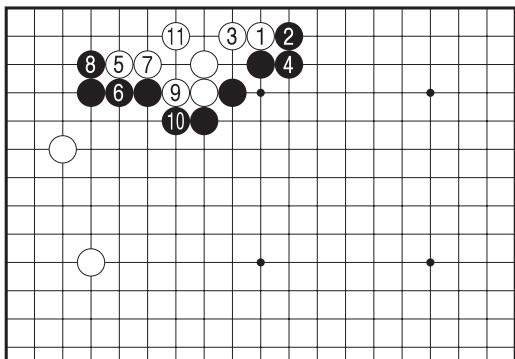
장면도2는 인천에 사는 김민석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. 사연을 들어볼까요?

“흑1에 두면 내 집이라고 생각하는데, 상수들이 백2로 들어오면 잡히지가 않습니다. 백2로 들어오면 도대체 어떻게 두어야 하나요?”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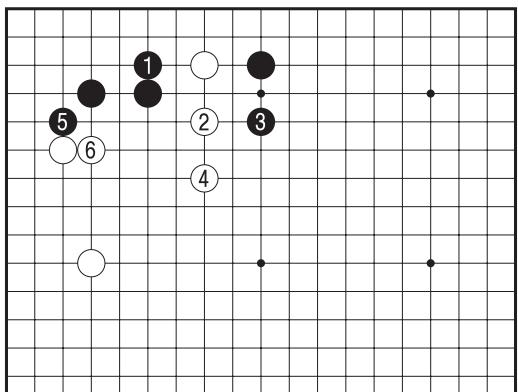
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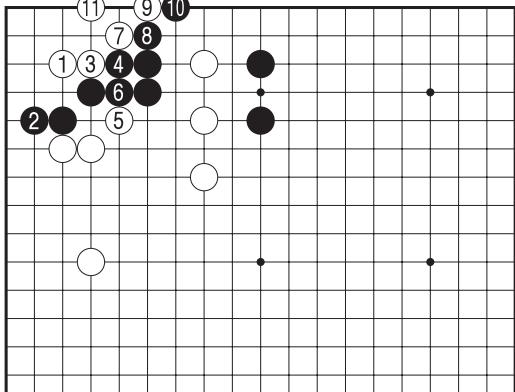
1도



2도



3도



4도

1도 정답 살려주고 두터움을 얻어라!

자~ 이런 모양 많이 나옵니다. 특히 고수가 이런 곳을 들어오면 손발이 떨려 어떻게 두어야 할지 감도 안 오시는 분들 많으시죠? 그럼 어정남이 확실히 정해드리겠습니다. 백 \triangle 엔 흑1 마늘모로 씌우면 됩니다. 그럼 위에서 봤듯 백은 3평짜리 땅에서 초라하게 살 수밖에 없답니다.

2도

백도 죽으면 안 되니 분명 1로 붙이는 등 살자고 발버둥칠 겁니다. 그럼 그냥 하자는 대로 받아주면 되는 거예요. 반항할 필요 없습니다~ 괜히 반발했다 끊겨서 죽으면 자기만 손해 보는 거예요. 흑10까지 거대한 세력이 완성됐죠? 백이 들어오면 무리해서 잡을 필요 없이 쪼그맣게 살려주면 되는 거예요. 그럼 고수들이 정말 싫어한답니다.

3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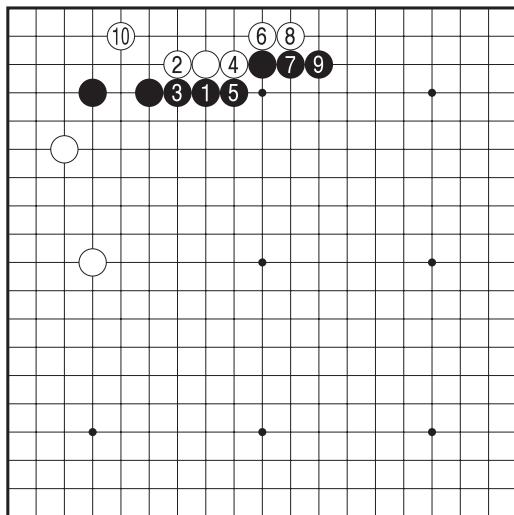
흑1. 그리고 흑5. 기원가면 만날 이렇게 두시는 분 분명 있습니다. 이렇게 뒀다가 한방에 흑갑니다~

4도

저런 모양, 여러분도 잘 아시는 약점이 있죠? 백1의 3·3을 당하는 순간 골치 아픕니다~ 백이 9·11로 버티면 잡지도 못하고 피곤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. 고수들도 어려운데 하수들은 이렇게 뒀다가 큰일납니다~ 조심하셔야 되요.

5도

마늘모가 어려우면 흑1도 괜찮습니다. 마늘모 보다 조금 손해지만 그 정도로 바둑 지는 거 아니예요~ 포인트는 역시 백이 하자는 대로 다 받아두면 됩니다. 집이 5평 정도로 조금 커지긴



5도

했지만 괜찮아요~ 흑에겐 더 커다란 중원이 있으니까요.

정리

자 그럼 정리 들어갑니다.

장면도1처럼 침입하면 무조건 다 막습니다~ 백이 안에서 살겠다고 하면 그냥 살려주면 되고 초반에 패를 걸면 만패불청하면 되는 거예요. 살려주면 손해 아니냐고요? 아닙니다. 왜? 다깨미야도 그렇게 뒀으니까~ 그래도 못 믿겠으면 일본 가서 다깨미야한테 물어보세요.

장면도2에는 마늘모가 정수입니다~ 마찬가지로 살자고 바둥거리면 그냥 살려주면 되는 거예요. 괜히 귀에 집지으려다 귀가 통째로 다 죽는 수가 있습니다~ 괜히 상수 대마 잡으려 갔다 도로 잡혀 줄담배 피우지 마시고 두텁게 두텁게 그냥 다 받아주면 되는 거예요. 아셨죠? ☺

예고편 변 침입 2탄

자, 지금까지 백이 A로 침입했을 때 대응 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. 그런데 다음엔 꼭 이렇게 받아야지 하고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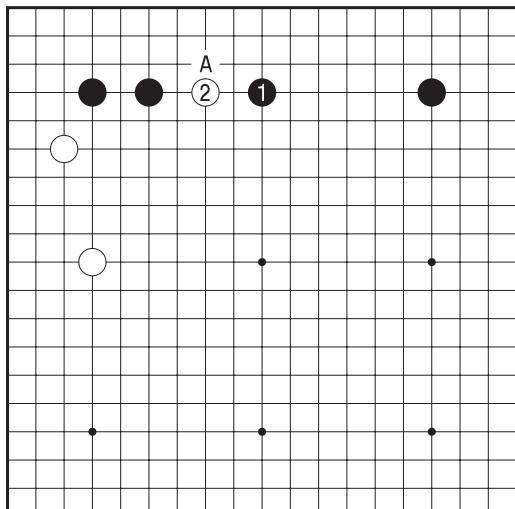
준비해 놓으면 꼭~얄밉게 비틀어 두는 상수들이 있습니다. 바로 백2가 대표적인 예이죠.

이거 쉽지 않습니다. 잘 잡히지도 않는데다 연결하기도 쉽지 않아서 고수가 하수 꼬셔먹을 때 단골메뉴로 쓰이는 수예요.

잘못 응수하면 양쪽이 갈라져서 단숨에 바둑 끝납니다.

미리 살짝 가르쳐 드리자면 백1은 단순한 꼼수입니다. 정수 아니예요~ 잘 대응하면 거꾸로 바둑 끝낼 수도 있습니다. 어정남만 믿고 잘 따라오면 되는 거예요. 자~ 그럼 정답을 공개해 드리겠습니다.

언제? 3월 호에!



문제의 장면